

### 김진표 국회의장, 美 기자단 접견

##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보조항 뒤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뉴욕타임즈·CNN 등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단을 만나 한국 현안과 관련한 주요 질문에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 기자단을 접견하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슈와 한국 정치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안으로 내국민 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또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한국산 전

“한미 FTA기본원칙 위배”  
북한 안보 이슈에  
한반도 평화 목표 달성  
한-미 간 협력 주문  
국내 정치상황 두고는  
“민생문제 해결해야 신뢰”

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뒤야 한다고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조치를 두고는 “한국 정부 차원의 세제·재정 지원 등 국내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서 한미 FTA에 기반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단을 접견했다.

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축법이 장기적으로도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려가 크고, 미국이 세계안에

게 전달해 온 약속과 메시지에 법이 부합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 및 자유항행 등 안보 이슈를 두고는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첨단 전략자산

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한미가 공동훈련을 자주 수행하는 등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격화된 한국 정치 상황을 두고는 “한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이 민생문제나 국가이익을 등한시하고, 정파적 이익이나 임박한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이라며 “민생문제 해결과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런즈 CNN 선임기자, 캐슬린 김스버리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편집자, 윌리엄 헤니건 타임지 기자, 브리타니 톰 NBC뉴스 프로듀서, 케빈 크노델·케이틀린 페럴 기자가 참석했다. /뉴스

## 도, 올 집중안전점검 47% 완료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점검 기간 맞아 1529개소 시설 대상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지난 8월 17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2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1529개소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여러 건축물 피해에 따른 선제적 행정으로 보인다.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은 노후시설, 주민신청 시설 등 1529개소이며, 시군에서 718개소를 점검하여 계획 대비 47%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633명, 관련 공무원 등 656명, 총 1,289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 중 도민들에게 자발적 관심과 참여 유도 등 파급효과가 큰 시설 5개소를 선정해 지휘부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5개소는 도지사 2회, 행정부지사 1회, 정무부지사 1회 총 4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포레나 전주 에코 시티 주상복합 신축공사장과 정읍 구 절초 출렁다리 현장점검에 나서는데, 이는 2021년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2022년 1월 광주 아이파크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등에 따른 공사장 등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

킴 행정 목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도민들의 체육·여가 활동·전통시장 이용 등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익산 보석박물관, 무주 반딧불체험관 및 반딧불장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점검에서는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철근 탐사기·초음파탐상기·드론 등 전문 점검장비를 활용하는 등 점검의 신뢰성 확보 및 내실있는 현장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위험요소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도의회 행사위, 119안전체험관 시설 점검

### 현장의정활동 일환... 구 도지사 관사 등 방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0일 구 도지사 관사와 임실소방서 신축사업 부지를 방문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119안전체험관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구 도지사 관사를 방문하여 도지사 관사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공간구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지사 관사 활용방안이 도민이디어 공모로 추진되는 만큼 도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3년 4월 준공 예정인 임실소방서 신축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전북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시설물 점검과 함께 지진, 태풍, 화재 등 재난체험훈련을 모습 체험해 위기상황에서 대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0일 구 도지사 관사와 임실소방서 신축사업 부지를 방문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119안전체험관 시설을 점검했다.

능력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성에 대해서도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119안전체험관 관계자에게 체험관은 화재·태풍·물놀이 등 50여 종의 종합체험시설이 있어 전국에서 연간 13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만큼 무엇보다 방문자의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20일 지동차융합기술원을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지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 관련 주요 시설 등을 시찰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자동차산업 재도약, 선도적 역할 절실”

### 김관영 도지사,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서 현장행정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일 자동차융합기술원을 현장 방문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 관련 주요 시설 등을 시찰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기술원과 전북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자동차산업의 친환경·미래차산업 전환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실제 연구를 담당하는 책임 및 선임급 연구원들도 참석하여 전북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각자의 아이

디어를 쏟아내며 도지사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그 후 상용차부품 R&D센터 및 자동차품질인증부품지원센터 등 자동차융합기술원의 핵심 인프라를 방문하여 주요 시험 장비를 시찰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의 사용 확장을 위해 ‘자동차순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일화를 설명하며, “대체인증부품을 전북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행정에서 김관영 지사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해 온 자동차융합기술원의 그간 노고를 격려하면서 “전북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기술원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군산·김제·완주를 중심으로 군산 전기·자동차 대체부품산업, 김제 특장차, 완주 수소차 등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을 통해 도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 도, 26일 안전관리자문단 하반기 운영회의 개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6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2023년 점검대상 선정을 위해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 도·시군 등 4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과 시기·계절별 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권세란 건축사(꿈꾸는 건축사 대표), △김일중 교수(전북과학대학교 건축

과 교수), △조장준 부장(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장) 등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3명에게 도지사표창을 수여한다.

회의에서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량, 육교 등 30개소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에 대해 분야별 점검결과를 위원별로 발표하고 후 사후조치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이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 실시 취지는 ‘시설물안

전법’ 대상시설 1, 2, 3종 시설에서 제외되어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등 법적 점검대상이 아닌 시설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추진하는 데 있다.

한편 안전관리자문단은 24명으로 구성되어 2년 임기동안 안전점검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 ‘한-베 우정 확인’

### 베트남 까마우성 대표단

### 전북 방문... 3박 4일 일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코로나 이후 전라북도 해외우호지역 대표단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 까마우성 대표단이 전라북도를 방문해 서로 간의 돈독한 우정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 우호지역 까마우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부지사)을 단장으로 하는 까마우성 대표단 일행 8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 도를 방문한다.

전북도와 까마우성이 2019년 5월 우호협약 체결 이후 까마우성 정부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전북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단은 20일 김중훈 정무부지사와의 공식 면담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양 지역간 직업교육교류를 추진하는 기관인 전주공업고등학교를 찾아 교류 주제인 전기학과 교류과제 시연을 참관 한 뒤 종합병원 선진의료시스템 견학을 위해 전주예수병원을 방문한다.

21일에는 대표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과 아시아 대표 ICT 농생명산업 거점인 김제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시찰하고, 부안군을 찾아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바쁜 일정을 마무리 한다. /김경수 기자

## 베트남 까마우성 대표단

### 도의회서 협력 증진방안 논의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20일 의정실에서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위원회 람반비(Lam Van Bi) 부위원장 및 대표단 일행을 만나 양 지역 간 경제·문화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도의회를 방문한 외국 대표단으로서 더욱 반갑다”며 대표단의 전북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뿐 아니라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이 함께 성장해 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 일행의 방문이 예정된 새만금과 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 예수병원 등도 꼼꼼히 둘러보고 전라북도과 까마우성 양 도·성간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람반비 부위원장은 “전북과 까마우성은 농업 분야 등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농업과 직업교육, 농산물 수출, 인력관리 등 전북의 장점을 많이 배우고 나아가 양 지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경수 기자

## 진안군의회 정례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20일 제2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권면기사연〉 이번 정례회는 20일~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으로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가 진행되며, 22일부터 2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이어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군민과 집행부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진정한 소통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기자